

“북한 경제개방 가능성… 법제도 미리 준비”

김형남 다음투자증권 상임감사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 논문 발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 제도’ 강조



김형남
다음투자증권 상임감사

“우리(한국)가 먼저 금융 법제도를 잘 정비해 줘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하려 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 동안 봉직한 뒤, 현재도 금융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형남 다음투자증권 상임감사(국민대 법학박사, 북한·통일법전공)가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10일 김 박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자본시장을 연다면, 제한적이겠지만 특정 지역을 개방해 외국인이나 일부 북한 주민들이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자본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북한에는 유가 시장이 없지만, ‘경제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을 한정적으로 개방하고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작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 법제 정비 사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뤘다. 그는 “이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들이기에 참고 사례로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겪었음에도 주요 금융 법제를 정비해 증권 시장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은 1993년 증권시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1996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11월 20일까지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베트남에는 ▲호치민 ▲하노이 ▲업컴(Upcom)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KOSPI), 코넥스(KONEX)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북한은 세습체제가 공고해 체제유지가 최우선 가치며, 주민 경제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에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거래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이 많고, 금융 시장이 전무해 보이지만 암시장은 존재한다”며 “이런 자원과 시장을 활성화하여 정상 궤도에 올리고, 주민들이 자본을 형성해 기업 자금 조달까지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금융과 경제 발전에 있어 ‘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 자본시장 설립을 지원했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에도 우리가 자본시장 구축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금융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할 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입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법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남북한 금융 제도의 공동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8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갖가지 사연은 있다. 48년생 행복과 불행은 자기 마음에 있다는데. 60년생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72년생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마련이니 날아가지는 말도록. 84년생 배 품에도 생각할 여유가 필요.
- 소** 3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알아서 처신. 49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61년생 많은 사람을 제치고 지도자가 되니 조심적이다. 73년생 종로에서 뽕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한다. 85년생 말조심 불이익당할 수.
- 토끼** 38년생 행복을 꿈꾸는 것이 원래한 것은 아니다. 50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오늘엔 침묵을. 62년생 호랑이 날아니 호랑이따와 거래는 불편할 수가. 74년생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리도록 욕심은 끝이 없다. 86년생 돈 자랑하다 깨질 수도.
- 토끼** 39년생 옛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51년생 삶의 질은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결정됨을. 63년생 화랑이 있다면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5년생 화목의 해결책은 한 발 양보와 타협이지 않을까. 87년생 고집이 마음 아프게 할 수도.
- 양** 4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2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 6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 76년생 설마하는 마음을 갖고 천천히 움직이자. 88년생 계약 건이 원만한 계약.
- 뱀** 41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53년생 친구와 여자로 인한 경쟁 할 듯. 6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보자. 77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야 낭패를 본다. 89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 말** 42년생 자기 기도에 의미를 달기보다는 실행해보시라. 54년생 자식 자랑도 자리를 봐가며 해야 한다. 66년생 승진운이 있으니 등화기친 하도록. 78년생 직장에서 행운을 가져오니 힘내자. 90년생 내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할 여유가 필요.
- 양** 4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 55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 67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7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사. 91년생 새벽부터 종일 질서를 지켜가면서 운전.
- 원숭이** 44년생 가정의 화목에서 행복이 시작. 56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68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면 된다. 80년생 불평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92년생 조직에서 일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니.
- 닭** 45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57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69년생 한번쯤 참으면 열음이 편하다. 81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식사 때 대화에 주의. 93년생 생각지 못한 수익이 생기니 기쁜 날.
- 개** 46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 58년생 호랑이따 울타리의 거래가 손조롭다. 70년생 지치지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쓰자. 82년생 남에게 베풀려는 어려운 얘기는 차후에 내게 이득. 94년생 꿈이 현실이 되기 포기 말라.
- 돼지** 4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59년생 인생의 좌표를 한번 손질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점검. 71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으니 피해야 한다. 83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혼란. 95년생 돈이 들지 않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다.

‘CEO 리스크’와 우리금융



기지 수첩
이 승 용
(금융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꾸던 우리금융의 계획은 점점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증권사를 인수했고,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보험사 인수에 나섰다. 결국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한방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됐다.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악재로 금융당국 인허가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사전에 인지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올해까지 부당대출이 실행된 점과 우리은행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우리금융 현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임 회장의 거취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증권업에서는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험업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보사의 자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번 경영실태 평가에서 우리금융이 2등급을 받아야 하지

만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 비중이 올해부터 높아지면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증권·보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꿨지만, 정말 ‘한낱 꿈’이 되어 버렸다.

‘CEO 리스크’는 항상 신사업 진출 때마다 발목을 잡는다. 실제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혁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태 연루로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금융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종합금융사로 거듭나려면 조직 쇄신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더럽혀진 몸’에 새 옷을 입는다고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lxy2665@

김상회의四季 보은(報恩)과 역사 ②

“가서 내용을 고치고 오든지 거기서 죽든지” 불같은 선조의 명령에 겁을 먹으며 역관들은 돈을 모아 그의 횡령액을 채워주었고 그는 역관으로 합류했다. 이들이 산하이관(山海關)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명나라 병사가 조선 사신들이라고 하자 “그럼 혹시 홍씨 성을 가진 역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순언은 “내가 홍씨”라고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병사는 딱히 대답이 없었고 다시 길을 떠나 대도로 향하는데 대도 성문 밖에서 병사들이 일행 중 홍씨 역관을 모시러 왔다며 맞이할 준비를 했다. 곧 한 남녀가 다가오는데 그중 여성은 바로 그가 돈을 주었던 류씨였다. 그녀는 “그때 주신 돈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부친의 지인들께 인사를 다니던 중 원래 친분이 있던 석씨 집안에 인사를 갔다가 지금 남편인 석성(石星)을 만나 혼인했다”라며 남편을 소개했다. 석성은 “결혼 후부터 아내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런 시대에도 아직 이런 의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꼭 만나 뵙고 싶었다”고 했다. 이들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석성은 지금의 교육 및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예비시랑의 높은 관직에 있었고 홍순언이 그간의 종계변무 문제를 석성에게 말했다. 일주일 만에 명서(明書) 개정판뿐만 아니라 일행이 갖고 귀국할 사본 한 질까지 제작되었다. 애당초 명나라의 국가 기록물 관리 자체를 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석성에게 권한이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홍순언과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귀국했고 선조는 150년 묵은 문제를 해결하니 크게 차라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석성이 수레 한가득 싣려 보낸 비단이 도착해 있었다. 여기에 ‘보은(報恩)’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류(柳)씨가 한 수 한 수 정성껏 수를 놓은 것이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월드파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5	4				7
	4							8
					3			
						7		9
6	3						8	4
1		8						
				3				
4								5
5			9	1				

						5	9	1
2	9			4			7	3
1		2						9
7							2	5
3		7		8				5
	2	6	5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